

정후식칼럼



정후식  
논설실장·이사

앞으로 2주간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과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게 될 새 선장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인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말한 한결같은 다짐이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다.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삼기겠다."

대선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과 '국민 대통합'을 역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정작 청와대에 입성한 이후엔 표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30% 득표율로 국정 독주 갈등 심화

이명박 대통령은 특정 학맥과 지연에 치우친 인사로 '고소양' (고려대·소망교회·영남) 혹은 '강부자' (강남 부동산 부자)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4대강 사업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종시 수정안, 미디어법 등 여러 현안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도 영남 편중 인사, 종북 몰이, 역사 왜곡 국정교과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대통합은커녕 국민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다. 급기야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으로 탄핵·파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은펜칼럼



옥영석  
중앙자활센터 자문위원

어느 집이나 모임에서도 이리저리 잘 어울리며,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많다. 학교가 끝나고 혼자 집에 가는 아이가 있고, 여럿이 어울려 놀다 가는 아이들이 있다. 업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료들과 어울려 뒤통에서 밤늦게까지 떠드는 사람도 많다.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집에 갈 때면 방향이 다른데도 동료들과 같이 나서야 하는 나는 혼자이기를 싫어하는 유형이어서인지, 홀로 다니는 사람은 모나거나, 곱박한 성격에 가졌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러니 여겨 왔다.

어느 날부터 눈에 띄는 친구가 있었다.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데다 실력도 출중하여, 직장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잘 나가는 친구가 유독 홀로 일 때가 많다는 것이었다. 성격이 모난 편도 아니고, 말 한 마디면 식당에 갈

기고



정석운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국토연구원이 '쇠퇴 지역 생활 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생활 교통비란 출퇴근·등하교·쇼핑 등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통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 승용차로 이동시 발생하는 직접비(자동차 유류비·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 등)에 간접비(시간 가치 비용)를 합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랜덤으로 8개 시군 222개 읍면동의 생활 교통비를 산정했는데 그 결과 군 지역에서 한 차례 생활 통행을 할 때 쓰는 왕복 교통비가 1만 6400원

국민 모두의 대통령

이들 양대 보수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를 각각 꾸렸지만 '통합'은 빈말에 그쳤다. 도리어 지역·계층·빈부로 편을 가르고 격차를 키우는 우편향 정책으로 분열을 심화시켰다. 권위적 통치와 '불통의 리더십'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퇴보를 거듭했다.

그 뒤를 이어 촛불 민심의 지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통합과 공존'을 기치로 내걸어 많은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치중하는 바람에 외려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 자녀 입시 비리가 제기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갈라놓았다.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 노력도 부족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넘었다. 신설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정 지지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마다 통합을 내세운 것은 선거에서 확보한 대표성이 미흡하기 때문일 것이다. 1987년 직선제 정취 이후 일곱 차례 대선에서 당선자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0%대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만 해도 투표에 참여한 선거인 수 기준으로 41.08%를 득표했지만 전체 유권자 중에선 31.6%에 그쳤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이 열 중 여덟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다른 후보를 선택했거나 기권한 유권자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보다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여 지지자들만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려 했다. 당파적으로 독주와 일방통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다. 친노·친이·친박·친문 의 패거리 정치도 그런 토양 위에 뿌리를 내렸다. 그 과정에서 반대편 유권자는 외면하거나 심지어 적대시하곤 한다. 이 때문에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국민의 과반수가 절망하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87체제의 산물'로 35년째 이어진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자리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 집중되다 보니 권력은 오남용되고, 입법부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성과

혼밥 연습

이 가려고 기다려 줄 사람도 많을 텐데, 늦은 점심을 홀로 먹거나 특별히 일이 없는 저녁에도 빈 사무실에 남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했다. 주말에 운동을 하다 사무실에 들르면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거나, 자신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서적을 읽거나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

오늘 내 모습은 어제 흘린 땀의 결과라는 말이 있다. 홀로 식사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고독한 시간을 활용하던 그는 경쟁자들을 반 바퀴 따돌린 쇼트트랙 주자처럼 승승장구를 거듭하고, 아이들 성격까지 좋으니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물론 그가 옳고 이리저리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비적이라는 건 아니다. 거북 거북한 맥주잔을 부딪히며 스트레스도 풀고, 정보를 교환하며 생산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아껴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람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혼자이기를 싫어한다. 외로움을 기피하고 두려워한다. 놀아도 같이 놀고, 숙제를 안 해 가고 일을 미루어도, 여럿이라면 매를 맞아도 마음 편한 게 인지 상정이다.

그러나 혼밥·혼술은 물론 혼자 여행하기를 뜻하는 '혼행'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다. 통계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2018년 29.3%, 2019년 30.2%, 2020년 31.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형 공유 이동 수단 지원 필요하다

으로 시 지역의 1만 2800원보다 28% 높았다. 이는 각종 생활 인프라까지 거리가 먼 군 지역의 경우 한 번 외출을 할 때 시 지역보다 평균 3.2km(편도 기준)를 더 가야 하고, 시간도 1.4분 더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교통이 열악해 승용차를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같은 군 지역일지라도 쇠퇴 수준에 따라 생활 교통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도입한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공유 이동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이 마을회관이나 정류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륜 전동차 등 개인형 이동 수단도 지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농촌 마을 길 정비, 차량 속도 규제 등 농촌 도로의 안전 강화 조치를 병행해 개인형 이동 수단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간선도로 투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 관리 대상인 군도·면도·이도에 대한 재원 투자를 높이고, 쇠퇴 읍면 주민들의 생활 교통비를 직접 경감해 주는 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에 급급한 정책 추진이나 책임 정치 실종, 조기 레임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하는 국민 통합 정부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초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 해체를 선언했을 뿐이다. 반면 적대와 협조를 조장하는 갈라치기와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나 멸공 인증 릴레이, 외 국인 건강보험 논란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및 광주 복합소핑물 유치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과거 진영이나 지역에 머물렀던 편 가르기는 이제 세대와 성별로까지 무한 확장되고 있다.

소통으로 통합 이뤄낼 후보 선택을

정치의 본령은 다양한 이해와 갈등 조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독재정권의 끝없는 탄압을 받고도 DJP연합을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로 국정을 안정시켰다. 그리고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실용 인사로 협치와 통합을 실천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대립으로 피 흘려 정취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국민은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 이번 대선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양극화·불평등을 넘어서 공존을 모색하며, 경제 회복과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정부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 정치가 늘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데 그만큼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기간 우리는 그야말로 눈여겨보고 귀여겨들어야 한다. 어느 후보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지, 권력 분산을 통해 통치가 아닌 협치를 실천할 수 있겠는지. 남은 2주일이 향후 5년을 바꾼다.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하는 여행의 비중도 2018년 2.5%, 2019년 4.1%, 2020년 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관광 부문 전체 소비액 중 1인 가구의 소비 비중이 14.5%로 전년 대비 5.5%포인트 급증했다.

또한 소셜 미디어 분석 역시 백신 집중을 시작한 이후 혼밥·혼술·혼행 등에 대한 소셜 미디어 언급량이 급증했고, 혼행은 일반적인 여행뿐 아니라 '혼캠'(혼자 캠핑), '혼등'(혼자 등산), '혼강스'(혼자 바캉스)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혼행을 떠나는 주된 이유는 혼자만의 시공간을 즐기거나 즉흥여행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정 변경이 가능하고, 1인에게 쾌적한 숙소와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기를 즐겨하는 이는 외로워 보이지만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공부도 일도 결국은 스스로가 소화해 내야 하는 자신만의 묵일인데,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안다는 것이니 말이다.

일과 후 무언가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거나,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하고 즐기는 건 어떤가? 당장 습관을 바꾸거나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혼행은 못해도 혼밥, 혼술이라도 연습해 볼 일이다.

社說

동문서답 많았던 실망스러운 대선후보 토론

여야 대선 후보 4인이 엇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첫 법정 TV토론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상대 후보를 평가절하하며 아전인수식 관전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제 비전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의원 전문가들의 평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윤 후보는 특히 본인의 공약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등 다소 해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대표적으로 정부 데이터 공개 문제에 대해 무지를 드러내, 질문한 안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또한 심 후보가 주식양도세 도입 이유를 묻자 '글쎄, 가르쳐 달라'고 솔직한 모습을 보인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개미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는 이 후보도 본인이 경제를 제대로 잘 알고 있다는 면을 확실히 보여 주지 못했다. 세금과 배당에 관한 정의당 심 후보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 것이 그 한 예다. 양강 후보가 대장동 의혹 등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인 것 역시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후보는 공격수 본능을 한층 강화했고 윤 후보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승부로 맞섰다. 명확한 근거 없이 무조건 내질러 놓고 빠지는 수법이 유행했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은 두 번을 남겨 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토론에서 관건은 어느 후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냐가 될 것이다. 선거일이 보름도 남지 않은 만큼 후보의 실수는 지지율 하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동·화정동 참사 비리 의혹은 손도 못 대고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붕괴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디기만 하다. 핵심 비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발생 8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제기된 조합장 비리 의혹이나 재개발 정비업체 측 비리, 현대산업개발 결계 라인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입찰 가격을 알려준 혐의(입찰 방해)로 현대산업개발 A상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엇그제서야 신청했다.

여섯 명이 희생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직원과 감리·하청업체 관계자 16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원청 기업의 묵인이 있었는지 등은 여태껏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한데 광주경찰청의 경우 수사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경찰은 지난 2020년 1102명에서 지난해 1038명으로 도리어 줄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은 늘었지만 수사 인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학동 참사를 수사하던 팀장이 수사 정보 유출 혐의로 구속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건설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사고의 핵심 당사자인 원청 업체 등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부실 수사도 한몫하고 있다. 경찰은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에 나서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복합소핑물은 소핑은 물론 문화와 레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유통 대기업들이 복합소핑물 사업을 주도하면서 도시 소비문화를 이끌고 있다.

롯데월드몰과 스타필드가 대표적인 복합소핑물이다. 신세계그룹은 코엑스몰을 시작으로 하남·고양·안성 등 수도권에 스타필드를 잇따라 개설한데 이어 경남 창원 등 지방 진출도 앞두고 있다. 스타필드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기존 복합소핑물은 물론이고 레스 토랑·카페·영화관·아쿠아리움·도서관(별마당)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클래식과 풋살을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까지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객 효과 커 '스타필드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근처 음식점이 낙수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에서 때아닌 복합소핑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이 광주에는 복합소핑물이 하나도 없다며 복합소핑물 유치를 호남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비판한다.

광주에 복합소핑물 유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광주시의 요청에 2016년 광주신세계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7000억 원을 투자해 복합소핑물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입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대신 신세계는 6302억 원을 대전에 투자해 지난해 8월 사이언스콤플렉스가 포함된 복합소핑물을 개점했다.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광주 복합소핑물은 물론이고 레스 토랑·카페·영화관·아쿠아리움·도서관(별마당) 같은 문화시설 그리고 클래식과 풋살을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까지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객 효과 커 '스타필드 맛집'이라는 이름으로 근처 음식점이 낙수효과를 누리기도 한다.

복합소핑물

58%가 복합소핑물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답했고 2030 세대의 70% 이상은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다. 국민의힘이 복합소핑물 유치를 내세워 민주당의 호남 확대론을 자극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는 되돌아볼 일이다.

광주 복합소핑물 논란은 대선이 끝나도 잦아들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常數)로서 본격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냉정하게 복합소핑물 유치의 득실을 따져 볼 때다.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